

韓國 戰爭과 慈恩面

鄭 泰 先
(鄉土史 研究委員)

1950年 6月 25日 北韓 共產 集團은 平和로운 南韓을 武力으로 不法 侵入하여 慈恩面도 完全히 敵의 手中에 들어갔는데 左翼 暴徒들은 面內 右翼 人士 및 有志 그리고 班長이나 마을 青年 團體에만 加入되었어도 反動分子, 惡質分子의 烙印을 찍어 억지 犯罪를 만들어 모진 拷問을 하였으며, 살 갖이 터지고, 뼈가 부러지고, 밤중에 불려 데리고 가서 竹槍으로 찔러 죽이는 蠻行을 저질렀다.

1950年 9月 28日 仁川 上陸 作戰의 成功으로 10月 5日 木浦 地區 收復 警察總 指揮官 朴亨根 隊長의 指揮下에 宋容浩 警備係長이 務安郡(當時) 島嶼地方 收復 命令을 받고 民間人 金鍾聲, 崔湫年, 李仁澈, 高西峯, 崔公仁, 文大宋의 協助下에 同年 10月 7日 押海面을 始作으로 收復 作戰

